

[연합]

제 목 : 이슬람교도 여성 성폭행 전범에 유죄선고
 수신일시 : 2001-02-23 00:17

분 류 : 외신
 기사량 : 1448

연합 H1-005_ S06-004 외신(716)

이슬람교도 여성 성폭행 전범에 유죄선고

(헤이그 dpa AP=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전범재판소는 22일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교도 여성을 성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전범 및 반인도죄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최고 2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강간이 반인도죄로 간주돼 국제전범재판소의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드라골류브 쿠나라치 피고인에 대해 강간과 폭행죄로 28년, 라도미르 코바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간과 노예화죄로 20년, 조란 부코비치 피고인에게는 강간과 고문죄로 12년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92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에 점령된 사라예보 남동쪽 포차에서 이슬람교도 여성들을 성폭행, 고문하고 노예화하거나 인간적 존엄성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20일 시작된 이 재판에서는 신원 보호를 위해 변호로만 식별된 성폭행 피해자 16명을 비롯해 보스니아계 여성 피해자 수십명이 '인종청소' 차원에서 자행된 끔찍한 성폭행과 고문의 실상에 대해 증언했다.

유럽연합(EU)의 조사위원회는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2만명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학교와 운동시설, 모텔, 가정집 등 이른바 '강간 캠프'에서 12세 소녀를 포함해 많은 여성이 성적 노예가 되기를 강요당했던 포차를 가장 악랄한 전쟁 범죄가 저질러졌던 곳으로 지목한 바 있다.

cwhyn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YONHAP) 010223 0017 KST

수신 : 김대형

참조 : 김대형 (fax No. 365-4011)

발신 : 이영경 (MBC 보도3 3주부)